



모빌리티 충전산업 원팀 체제 가동한다

-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정책방향」 발표
- 산·학·연 60개 기관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 가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2.13.(수) 민관 합동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 발족하고,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친환경·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충전인프라 시장도 중요성이 커지고, '30년에는 3,2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회가 커지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 전 세계 전기차 이용량: '22년 3천만 대 → '30년 2억 4천만 대 (IEA)

** 전 세계 전기차 충전기 보급 전망: '22년 270만기 → '30년 1,270만기 (IEA)

정부는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하였다. △충전기 산업화 역량 강화, △해외시장 진출 확대, △충전기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축으로, '30년까지 5대 핵심기술SW를 확보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22년 1.2%에서 '30년 10%로 끌어올리는 한편, 매출 500억원 이상 충전기 제조사를 5개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를 비롯해 충전기 제조업체, 부품업체, 충전 서비스 운용사업자, 시험인증기관 등 40여 개 기업과 20여 개 기관 등이 참여하여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제조혁신, 서비스그리드 융합,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 시장진출 협력 등 4개 분야에 분과를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장영진 1차관은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가 모빌리티 충전산업을 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발판이 되길 바라며, 정부는 기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규제완화와 기업애로 해소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국	책임자	팀 장	이은희 (044-203-4390)
	미래모빌리티팀	담당자	사무관	윤인식 (044-203-4391)

- (일시/장소) '23.12.13.(수) 15:00~17:00, 웨스틴 조선 서울
- (주최/주관) (주최)산업통상자원부·(주관)한국자동차연구원
- (참석자) (정부)산업부 장영진 차관, (기관)홍충선 경희대 부총장,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신희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원장,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하성용 한국자동차공학회 부회장, 정문식 스마트그리드협회 본부장 (기업)신승규 현대차 전무, 오영식 이브이시스 대표, 신임철 GS커넥트 대표, 현준용 LG유플러스 부사장, 김정현 우진산전 대표 등 완성차사, 충전기 제조사, 운영사 등 관계자 150여명
- 행사진행(안) 출범식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심포지엄

구분	시간		프로그램
(1부) 출범식	14:30~15:00	'30	- 등록
	15:00~15:05	'5	- 개회 선언 및 내외빈 입장 및 주요 참석자 소개
	15:05~15:10	'5	- 환영사 (산업부 장영진 차관)
	15:10~15:15	'5	- 개회사 (한국자동차연구원 나승식 원장)
	15:15~15:20	'5	- 모빌리티 충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산업부)
	15:20~15:30	'10	- 모빌리티 충전 산업 융합얼라이언스 출범 세레머니 및 기념촬영
휴 식	15:30~15:45	'15	- 장내 정리 및 휴식
(2부) 심포지엄	15:45~16:00	'15	- 전기차 및 충전기 제조, 통신 및 서비스 분과 추진방안
	16:00~16:15	'15	- 시험·인증, 글로벌 협력 분과 추진 방안
	16:15~17:00	'45	- 패널토론: 전기차 충전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 (배경) 모빌리티 충전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진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완성차사, 충전기 제조업체, 부품업체 간 협업 얼라이언스 구축
- (분과 및 주요 기능) 4개 분과로 구성
- ①수요-공급기업 R&D 협업과제 발굴, ②표준화 및 규제개선 등 기업 애로 해소, ③해외인증 공동 대응 등 글로벌 진출 협력 등 추진



* '23.12.13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방향

산업화 역량 강화

'30년까지
5대 핵심기술·SW 확보

해외시장 진출 확대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22년 1.2% → '30년 10%)

생태계 활성화

'30년까지 매출 **500억원** 이상
충전기 기업 **5개사** 육성

1

충전기 산업화 역량 강화

선도적 기술 경쟁력 확보

5대 핵심기술·SW 기술개발



파워모듈 등 핵심부품 자립도 제고

* 소부장 협력모델 발굴 및 지원

'제품 + SW·서비스' 플랫폼 등 新 비즈니스 창출 지원

* 자율주행 유무선 충전 융합서비스 개발('22~'25, 150억원)

시장 제도 개선 및 투자 촉진

제도

- 산업육성 관점에서 보조금 개선 검토
- 국내 충전통신(OCPP) 인증 규제 완화('24년)
* OCPP: 개방형 충전통신규약
- 한국형 OCPP 인증 표준 마련('24~)
* 전기차 충전 보안 워킹그룹 구성('23.12월)

투자

- 전기차 충전기술·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혜택('24년 일몰 예정) 연장 추진
- 소부장 특화단지 연계 제조공장 입주 지원

2

해외시장 진출 확대



미국·EU

- 전기차사와 협의체 구성
- GP센터 신규 개소, GP상담회(연 5회)
* '24년 스톡홀름 예정
- IRA 등 기준 명확화



아세안

인도네시아 ODA 연계 충전기 진출

* 인니 e-모빌리티 센터 개소('24년초)

태국·필리핀 초소형 전기차 충전기 보급

* ODA 신규 기획



중동

서늘경제협력단 파견('24.上)

사우디·UAE 등과 충전인프라 협력사업



해외 인증

- 민관 공동 대응 체제 가동('24년 上)
* 주요수출국에 연 2회 인증 공동대응 지원
- 국내 외 기관간 상호인정 확대
- 인증센터 공동 활용('24년~)
* 민간(현대차) 및 KTC 인증센터 공동활용 등



수출 지원

- 전시회 참가 지원
* 美 ACT 엑스포('24.5월), 런던 EV쇼('24.11월) 등
- 중소·중견기업 전용 수출보험 보상한도 증액(30만불→50만불)
- 국가별 시장동향 제도 분석·제공

3

충전기 생태계 활성화

충전설비 및 부품 안전기준 강화('24.1월)

* 초급속 충전기 안전기준 KC 표준 마련('24년)
(충전용량: 200kW → 500kW)

디지털 안전관리 통합플랫폼 구축('24~)



안전



공급망

- 파워모듈, 반도체 등 주요 부품의 해외의존도 및 수급현황 점검
- 부품공동구매 수요조사 및 대응



생산성



인력

충전기·부품 제조 공정 스마트화

* 제조로봇 실증보급사업 활용('23년 총 230억원)

전기차 충전기 특화 자격 신설('24년)

- 직무능력개발 교육과정 신설